

fnart 와 함께 하는 그림산책



정창섭 '리턴 77-E'

## 경계를 알 수 없는 修身의 결정체

먹이 번지고 스며 그 경계가 모호하다. 한국 전통의 닥종이를 물에 불린 후 주무르고 반죽하는 과정을 거쳐 그림을 그리는 정창섭 화백(1927~2011)의 1977년작 '리턴 77-E'다.

흔히 '그리지 않은 그림'으로 불렸던 정창섭 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윤희근(1928~2007), 박서보(83), 정상화(82), 하종현(79), 이우환(78), 김기린(78) 등 1970년대 단색화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작가들의 대표작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.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'단색화의 예술'전이다.

단색화는 1970년대 시작된 한국 고유의 화풍으로, 여러 색채 대신 한 가지 색채나 그와 비슷한 색채로 구성하는 회화 양식을 일컫는다.

상대적으로 저평가돼온 단색화는 최근 들어 국내 우수 화랑과 미술관 등에서 여러차례 조명할 정도로 붐을 이루고 있다. 이번 전시

도 지난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'한국의 단색화'전의 윤진섭씨가 초빙 큐레이터로 참여했다.

윤진섭 큐레이터는 "단색화의 요체로 꼽히는 촉각성과 정신성, 행위성은 하나의 공간에서 겹치거나 스며드는 등 서로 맞물리며 궁극의 지점을 향해 나아간다"면서 "이런 경향은 이번 전시에 출품된 여러 작가들의 작품에도 고르게 스며 있다"고 말했다.

이번 전시에 '묘법' 시리즈를 내놓은 박서보 화백은 "한때는 '저것도 그림이냐'며 사회적 멸시도 받았지만 내 작품은 스님이 반복해 독경하듯 끊임없이 반복한 행위의 결과물"이라면서 "그림은 결국 나 자신을 비워내는 도구다. 수신(修身)하는 과정의 찌꺼기가 바로 그림이다. 그냥 찌꺼기가 아니라 정신의 결정체다"라고 했다. 전시는 10월 19일까지. (02)735-8449

jsm64@fnnews.com 정순민 문화스포츠부장